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도, 자동차부품·뿌리기업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동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기술·비즈니스 협력 협약 체결

전북도 자동차부품·뿌리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28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과 군산자동차부품협회(이하 협의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지명 글로벌 구매담당, 안디잔주 부지사 등 4명이 기술원을 방문하여 도내 자동차부품·뿌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위해 기술원과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방문기간(5. 27~5. 31) 동안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자동차부품협회 등 도내 자동차부품·뿌리 기업 6개사와 전북도, 군산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기업, 기관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정보공유,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군산지역 산업위기에 따른 우즈베키스탄 지명 및 관련 기업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기업공정 시찰 및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교류를 시작했으며, 이번 초청을 통해 기술원 및 협의회와 각각 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지명 글로벌 구매담당이 도내 자동차부품·뿌리 기업 6개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와 기술원은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공정 및 환경개선, 인력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시장개척 활동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성수 자동차기술원장은 "도내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번 우즈베키스탄 지명 및 안디잔주, 아사카시와의 협약(MOU) 체결을 통해 도내 뿌리·자동차부품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유희수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한국지명 군산공장이 지난해 5월 폐쇄됨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북도와 기술원이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해 왔으며, 이번 우즈베키스탄 관계자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도내 자동차부품·뿌리기업이 현지화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여름 휴가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데미샘 자연휴양림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천제 시행 6월 1일~13일 신청 접수... 14일 당첨자 발표

전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데미샘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약 추천제를 오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 한하여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양림 여름 성수기 예약 추천제'를 운영하며, 숙박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약 신청은 데미샘자연휴양림 홈페이지(www.forest.jb.go.kr/demisam)

를 통해 6월 1일 오전 9시~13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숙박 기간은 1박 2일만 가능하고, 신청자는 이용을 원하는 날짜와 객실을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추첨 방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별, 숙소별 예약시스템 상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명씩 당첨자를 결정하여, 6월 14일 오후 2시~3시 사이에 당첨자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알린 후, 이용료 결제기간 중 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

따라서 발표 당일부터 16일까지 꼭

결제를 해야 하며, 본인 취소 또는 미결제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2순위 예약 대기자에게 배정된다.

섬진강 발원지가 소재한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데미샘자연휴양림은 20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집(10동), 한옥형 숙박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 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산림문화·휴양의 공간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올 여름 도민들이 데미샘 자연휴양림에서 시원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내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 맛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文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국세청장 김현준·법제처장 김형연·靑 인사수석 김외숙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현준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조현욱 청와대 인사수석을 대신할 후임으로는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 수석이 직접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수석이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2017년 5월 17일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김종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차관급 인사 발표를 통해 인사수석으로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선은 지난 23일에 조세청 외교부 1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 9명을 임명한 뒤 5일 만이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인사로 해석된다.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승희 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다. 각각 2017년 6월 9일과 11일 임명된 뒤 2년간 변화 없이 법제처와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문재인 청와대 1기로 정부 인사 검증에 책임졌던 조현욱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조현욱 인사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차관급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임 김외숙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게 됐다. 3·8 개각 등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이 있었지만 여성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 2년 간 인사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동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관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인 김 처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경북 포항 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거쳐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뉴스

하절기 악취저감대책 행정력 ‘집중’

도, 악취발생 중점업체 집중단속

전북도는 하절기 본격적인 폭염 전에 가축분뇨 관련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악취 민원 다발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악취민원은 총 1,081건 중 6~8월에 집중적으로 569건(51.7%)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에는 하절기에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군별 2회 이상 발생된 민원 다발사업장 210개소를 선정하여, 8월말까지 주·야간에 악취검사와 병행하여 불시점검을 추진하고, 위반사업장은 개별법령에 따라 강력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축분뇨와 퇴·액

비 외부 아저, 악취 배출시설 등 적정 관리 여부, 탈취제 등 악취 저감제 살포여부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악취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야간·새벽 등 취약시기에 순찰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여 혹시 모를 불법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으로 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원 다발 사업장 38개소에 대해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및 탈취탑 등 설치를 위한 도비 5.7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으로 시설개선 및 저감시설이 필요한 사업장은 해당 소유주 등과 협의해

202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10대 핵심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전북 혁신도시 악취저감대책은 도 관련부서, 3개 시군과 협업체 4개 분야 15개 사업(172억)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축산시설에 대해 5월 현재까지 도 주관 합동점검을 통해 61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에 대해 고발 8개소, 과태료 3개소에 대해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악취 문제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요건에 따라 수시로 악취강도가 변화함에 따라 발빠른 대응이 쉽지 않은 감각공해”이지만, “도에서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들께서 악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사업장 점검, 저감시설 설치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사랑 넘치는 전북, 모두 함께 만들어요”

도, 희망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성료... 39개 표창 수여

전북도는 2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희망2019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과 2018년 배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한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송

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사회복지중심 대강당에서 '희망2019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희망2019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과 2018년 배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한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송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은 이웃돕기 부문과 배분사업 부문 두 부문으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이웃돕기 부문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 등 개인 및 기업 16명, 배분사업 부문에서는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등 개인 및 기관 9명이 각각 받았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가 그 어느 해 보다도 위축되면서 도민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해 주셨다”며 “사람이 희망임을 보여주는 사랑이 넘치는 전북이 되도록 이웃사랑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